



## 이집트 올해 밀 자급률 65~70% 전망

(2013.4.29. 로이터통신)

원제: Egypt may be 65-70 pct self-sufficient in wheat this year

이집트 국무 총리는 국내 생산량 증가 전망으로 올해 밀 자급률이 65~70%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. 이집트는 보통 연간 약 1,000만 톤의 밀을 수입하지만, 올해 수입량은 400~500만 톤이 될 것이며 나머지는 국내 생산으로 충당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. 무바라크 전 대통령 축출 후 2년 넘게 정치적 혼란으로 해외 관광객과 외국 투자가 줄어 외환 보유고를 수입대금 지불에 사용하고 있다.